

박람회와 국제학술대회의 만남으로 양계발전의 재기를 기대하며...



박 근 식
한국가금학회장

야태가금학회 서울대회조직위원장

'91년 제1회 한국 양계 박람회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동서 냉전과 이념의 갈등이 해소되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군사적 패권의 위험은 사라졌으나 새로운 경제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도 한 나라의 유지와 풍요로운 국민 생활을 위해 이념을 초월하여 경제를 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중에 GATT나 UR을 통한 자유 무역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세계무역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속에 문민정부가 수립되어 신한국 창조를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농업을 거듭나게 하는 신농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금번 제2회 한국 양계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금번 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양계 산업분야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제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되어 그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851년에 최초로 개최된 런던 박람회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박람회가 세계 도처에서 개최되고 있음은 이들의 박람회가 문화와 산업 발달에 크게 기여 되어 왔기 때문이고 또 최근에는 박람회가 산업 기술 정보 전달 매체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금번 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양계 산업분야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제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되어 그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세계가금학회 제5차 아세아 태평양 가금학회(FESPA/WPSA) 총회 및 학술대회와 같은 장소(서울무역종합전시장 KOEX), 같은 시기(1993년 8월 18일~

20일)에 개최되므로 박람회가 갖는 교육적 효과는 더욱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가금학회가 주관하는 아세아 태평양 학술대회는 가입국 14개국에서 모이고 한국 양계산업의 누적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닭의 영양, 번식 생리와 기술, 육종, 사료, 가공처리, 질병 및 위생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8명을 초청하여 특강을 갖도록하고 또 한국 양계산업의 미래를 위해 현재 한국 양계 산업분야에서 문제되고 있는 계사의 자동 환경조정 계사의 설계와 운영 그리고 자동화 시설내에서의 에너지 대사, 질병위생 관리에 대한 심포지움(4명의 연사)과 또 경쟁 대상국들의 양계 생산 전략을 발표케 하므로써 한국 양계의 생산 전략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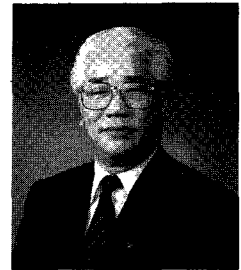
또 본 대회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양계 생산 전략”이란 주제로 3일간 학술대회가 개최되면 14개 회원국에서 그동안 얻어진 다양한 연구 결과 발표가 있어 한국 양계산업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크게 공헌 할 국제학술대회와

박람회의 만남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 양계산업을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기회에

양계 관련 산업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의에 빠진 한국 양계를 재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현재 당면한 우리들의 축산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회가 되길...



송 찬 원
축협중앙회 회장

제 2 회 한국양계박람회
의 개최를
우리 양축가 조합원 모두와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계산업을 비롯한 지금의 우리 축산업은 가속화되는 시장개발의 거센 물결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현안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인 모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임시적이고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 우리 축산업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축산농민들은 축산업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공격적인 축산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